

“내 아이 교육은 내가” 광주 학부모 아카데미 ‘복직’

매회 참여신청 조기 매진
전문가 특강·EBS 공동 행사

자녀의 진로 선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우려는 학부모들의 ‘배움 열기’가 뜨겁다. 이러한 분위기는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열고 있는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부모에게 정확한 진학정보를 제공해 입시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의 자기 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설해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회 3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3차는 희망자가 대거 몰리면서 참가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올해 4~6월에는 행사 장소를 조선대학교로 옮겨 지난해보다 회당 100여명 이상 늘리는 등 참여 규모를 확대했지만, 신청 초반에 마감됐다. ‘앉을 좌석이 없어도 좋으니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는 학부모까지 등장하면서 서서 강연을 듣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는 대학 입학사정관 등 전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해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전형부터 재

학 중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 교내 활동, 수업 참여 노하우까지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줬다는 평이다. 입시 내용뿐 아니라 청소년기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 부모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뤘

다. 행사가 오후 7시 이후에 열려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실제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

가자의 96%가 ‘이번 강의를 통해 대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응답했다. 94%는 ‘자녀 진학과 관련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학부모 아카데미 재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8%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하반기에도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3회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고1·2 학부모를 대상으로 김용진 동국대사대부속영석고 교사를 초청해 ‘독서를 통한 학교 속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특강을 개최한다. 10월과 12월에는 EBS와 공동 주관으로 행사를 연다. 10월에는 고1·2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2027학년도 대입 준비하기’를, 12월에는 예비 고1인 중3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학년도 대입 준비하기’를 진행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는 학부모들이 진로·진학 전문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며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u.kang@jnilbo.com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발자 축제’ 개최

16~18일 학생 작품 전시
기업 CEO 초청 특강 등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는 16~18일 사흘간 금봉관 2층 강당에서 ‘GSM DEV FEST(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발자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활동으로 개발한 웹·앱·IoT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26개 부스를 설치해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앱(APP) 등을 전시하고, 기업체 CEO와 SW개발자들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앱 부스 발표 평가를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 중학생 대상 학교 체험, 입학



상담, 학교시설 견학 등을 진행해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를 꿈꾸는 중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홍진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행사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추진했다”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전남도교육청, ‘체육계열 대학입시 실기’ 지원 나섰다

모의 시험장에서 8개 종목 운영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보성 다항체육관에서 체육계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체육계열 대학입시 실기 모의 테스트’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체육계열 대학입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49개교의 200여명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함께 체육계열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행사는 대학입시 실기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자리멀리뛰기 △좌좌전굴 △배근력 △10m 왕복달리기 △서전트 점프



△윗몸일으키기 △지그재그런 △메디신볼 던지기 등 입시 전반에서 실시하는 8개 종목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한 학생은 “체육대학에 진학하고 싶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입시 체육학원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모의 테스트 행사

를 통해서 실기 종목을 경험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은 모의테스트가 주기적으로 열린다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현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실기 모의테스트를 권역별로 정례화하고, 이러한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체육계열 대학입시를 지원하기 위해 대입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시전형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인력풀을 활용해 체조, 육상, 구기종목 등 전문 실기 집중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주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록탐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록탐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